贈呈

3 - AUG - 9
Copy ____ 1960

조선인민군창건7주년

백 인 균 그림

№2 (51) 1955.2

시사만화잡지

활살

조선의 참다운 주인공들!

승리자들을 축하합니다!
1955년은 더욱 빛나는 승리가 있을것을
확신 합니다!

안 창 수 그림

크낙한 담보

증산과 건설의 불길 속에서
三개년 계획의 첫 해의 과업을
보람차게 초과완수 했거니
영웅 조선의 아들과 딸들
승리의 숨결도 거세여
깃발은 찬란히 펄럭이여라

三천만이여 승리의 노래 드높이 부르자
잿더미 속에서 일떠선 공업
전쟁 전 수준을 넘었으며
120여개의 공장 기업소가 복구
최신식의 새공장 40여개가 건설되지
않았는가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깃발은
찬란한 사회주의의 광명을 향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물결쳐 휘날리어라

조국 통일은 3천만의 생명
그러기에 원수를 무찌르던 그 기세로
조국통일의 크낙한 담보를 구축하려
민주기지 강화에 총궐기했어라
당과 수령은 이 성스러운 길을
가르키고 또 밝혀 주었으며
우리 충성스레 따랐거니
형제국가들의 의로운 원조도
몇 갑절 보람찼어라

우리 그 날을 마지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민주기지 강화에로

돌진의 명령은 내렸다
로동의 영예를 떨칠 때는 왔다
온갖 창의를 짜아 내여라
그 날의 과제는 그 날로 초과해라
3개년 계획의 정점은
바로 눈 앞에 보이거니
미제 『강적』을 무찌르던
그 용맹과 그 지혜로
똑바로 돌진! 돌진! 돌진하자
증산과 건설의 용사들이여
승리의 꽃다발을 안고
보다 더 찬란한 다음의 꽃다발을
받으며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여라

—소 석—

륭성하라 영웅의군대여!

—2·8절 7주년을 경축하여— 박세영

자유를 앗긴 분노의 세월이
억울함도 그 처럼 많던 우리들이
오늘은 찬란한 건설과 더부러
아름다운 생활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던 인민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 보람이여!
위대한 해방자 불멸의 위훈은
우리 몸에 항상 꽃을피게 하였네

새나라 인민된 자랑 하도 많지만
더 큰 자랑 우리를 솟구치게 하나니,
피 물고 대들던 원쑤들을 무찔러 버린
영명한 우리 인민의 무력 있어

그러기 원쑤의 천만 포화도
그대들 불굴의 용맹 앞에 자즈러지고,
제놈들 백년 침략의 야욕이
신성한 우리 자유 앞에 굴복되였다

제놈들 무리진 땅크면 무엇했으랴
김일성 원수의 불패의 전사들인 그대들
복쑤에 끓는 가슴앞에 주저 앉았고
명중의 불벼락에 부서져 나갔다

나서 자란 어머니 조국땅에
청춘이 바친 뜨거운 그 마음들로해
피로 지킨 사랑하는 인민조국
영웅 조선은 승리하였다

오늘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인민의 마음 그대로인 꽃보라 속에
영광스런 인민군대의 탄생을
산천도 이러서 환호하던 그 날을

비록 너는 청소할 망정
언제 보아도 믿음직 했고
김일성원수 항일유격대 불굴의 의지를
심장에 지닌 부프른 그 가슴들 철벽이였도다

산과 들은 눈으로 깨끗이 덮이고
아직도 설한풍은 불어 땅은 얼고 있건만
자유와 행복에 끓는 인민의 숨결로
흐뭇이 풀린듯 아름다운 우리 강산

불속에서 배며 강철로 자란 그대들
정의로 뭉쳐서 굽치 않는 그대들
그대들의 찬란한 위훈은
오늘 장엄한 건설에서 자욱 마다 빛난다

우리 그 무엇 아까운것 있으랴
민주기지 수호하는 그대들을 위하여,
우리는 희망이 날개치는 그날도
세월을 앞 서며 로력의 위훈으로 대답하리

평화의 방선을 눈동자 처럼 지키는
영웅의 군대 인민군대여!
다함없는 영광속에 륭성하라,
우리 승리의 찬가를 보내드린다

1955. 2. 8.

조선 인민이 낳은 인민 무장력은 강대하다

미군—이 바보같은 사람아 왜그꼴이 되였는가?
일본군—묻지를말게 김일성 항일 빨찌산은 생각만 해도 떨리네!

최 한 진 그림

일본군—세계최강을 호언 장담하던 당신의 꼴은 왜 그 모양이요?
미군—말말게 조선인민군대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네!

영웅적 조선 인민군대는 김일성 동지의항일 빨찌산 투쟁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선진적 쏘베트 군사 과학과 현대적 최신 군사 기술로 무장되였으며 3년간의 정의의 조국해방 전쟁에서 고귀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은 현대적이며 강유력한 인민의 무력으로 장성 하였다.

박 승 히 그림

관료 주의자의『갑옷』

— 인민들에게서 배울줄 모르며 비판을 받아 드리지않고 관료주의의「위풍」을 떨치는자

력사적 2월 연설 이후 많은 결함들이 시정되였으나 아직도 일부지도 일꾼들에게는 관료주의적 작풍이 남아있다.

로동의 영예

— 일을하면 할수록 자미가나요!
아! 유쾌하다!
(조선 사람들의 아름다운 풍모는 로동과 투쟁과 창조속에서 꽃핀다)

— 아 ! 골치야…일이손에 잡혀야지…—
(그럴 수 바께 당신은 아직도 낡은 잔재가 머리 속에 꽉찼으니)

박 승 히 그림

령리한 선택

— 엄마! 따뜻하고 공기 좋은 우리집 참좋아요

강선 제강소의 생산 실적은 월초에 푹 떨어 졌다가는 월말에가서 급격히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형편에 놓여있다.

리 영 춘 그림

때만 기다리면 대수인가?

사과 나무 아래에 들어 누어 사과가 떨어지기를 입을 버리고 기다리였다는 게으름뱅이의 우화가 있다

청진 조선소 지도일꾼들은 이와 꼭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친구』에 가깝지 않을까? 그들은 모든 사업을『때』에 마끼고 생산실적이 내려가도 올라 갈『때』를 기다리고 원자재가 떨어져도 올『때』를 기다리며 책상 머리에 앉아『기다리기만』한다

조기직장에는 앙구루, 환철, 원자재가 떨어져 작업을 쉬게 되였다 『자재를 속히 조달해 주시요』 지배인실 문턱이 닳토록 드나 들며 로동자들은 제의하였다

『기다리시우 관리국에서 자재가 올『때』까지』

『그럼 그 사이 놀구 있으란 말입니까?』

『허 허…쓸데 없는 말…그『때』까지 다른 일 하면 될게 아니우』 지배인의 말은 간단 하다

또 제재직장에는 줄톱이 부러져 수리할때에 필요한 은납이 없어서 역시 로동자들은 수차 제기 하였었다

『은납이 없는게야 어떻게 하겠소 어떻게 림시 라도 떼어 완전히 수리할『때』까지 쓸 수 없을까?』

그러나 부러진 톱을 은납 없이 림시수리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불가능하였다

제재직장의 생산이 이와같이 보장 되지 못 함으로써 목선 직장 로동자들도 목골, 통골, 등 자재가 없어 작업을 쉬게 되였다

『자재직장에서 자재를 보장 할『때』까지 다른 나무라도 규격에 마춰서 대용할 수 없을까?』

지배인의 대답은 판 찍어 놓은 듯이 동일 하였다

『때』를 기다리 라는 지배인의 솜씨에 로동자들은 자기의 부서를 떠나 로천 작업의 정리 사업에서 지배인이 말하는『때』를 기다리며 쓸기 없는 일을 하게 되였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지난달 10일 동안에만 해도 50여 공수의 로력을 랑비 하였으며 생산계획은 접 먹은 자래 목 같이 쫄아 들었다『지배인동무 생산실적이 락후해 지는데 방책이 있어 야 하지 않겠소?』 로동자들은 참다 못하여 이렇게들 항의 하였다

『동무들! 너무 그러지 마우, 미 달성 숫자는 념려 없소 이제 돌격식으로 내 몰『때』가 있을 테니』

『또 돌격식?!』

로동자들은 말만 들어도 입에 쓴 물이 돌았다

지난해 이 조선소의 결함은 월말과 분기말에 가서 돌격식으로 내 몰아 많은 오작품을 낸 것이였다 지배인은 새해에는 이런 결함을 다시 반복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도 했었다..

『때』만 기다리는 지배인에게 좋은『때』는 한번도 오지 않았다 앉아 기다리는 자리에 검은 먼지『때』만이 늘어 갔다

멀지않아 있을 진수식을 기다리던 배 들도 먼지『때』에 쌓여 지배인실을 원망 스럽게 쏘아보듯 엉성 스럽게 바깥에 쭉 렬을 지어 있을 뿐이 였다 —류 달—

강덕요업 공장은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하며 기술 공정의 합리화와 생산의 기계화를 보장하지 못하고있으며 선진적작업 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옳게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지배인 동무!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오늘에도 우리의 작업도구는 그것이 그것이군요…

리 영 춘 그림

하부의 실정을 모르고 보니……

— 여보! 바지를 만들어야할데 저고리감이 왔으니 야단났소………

— 허허…우린 저고리를 만들데 바지감이 왔소구려……

경공업성 견방직 공업 관리국 지도 일꾼들의 무책임성으로 말미암아 박천 견직공장에 부족한"21중"생사는 녕변 방직공장에 배당되고 녕변견직 공장에 부족한 위사용"28중"생사는 박천 견직공장에 배당되여 두 공장이 모다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다.

주먹 구구에 박 터진다

일부 탄광 지도 일군들은 탐광 굴진과 채굴 준비굴진을 생산에 선행시켜 채굴 장소를 제때에 확보함으로써 정상적 채굴을 보장하지 않고 당면한 생산 숫자나 보장하여 책임이나 모면하려는 조급성벽에 탄굴만하고 있다. 결과 로력과 자재를 랑비하며 생산에서도 파동성을 이르키고 있다.

– 기사장동무! 인제 팔 데가 없으니 하루 잘먹고 사흘 굶는 격이 됐습니다

– ?!

기괴한 창안품

최 한 진 그림

평양 농기계 제작공장에서는 계획규률을 준수 치 않고 무계획적으로 손쉽게 사업한데로 부터 생산품을 조립하는데 있어 일부 부속품은 부족되며 일부 부속품은 남게되여 생산에 균형성을 보장 못하고 있다.

–힘든 창안 품인데요?

–네 없는것이 너무도 많아 이리저리 마추노라고요….

무사태평

방대한 3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코자 동평양 가공공장 로동자들은 모다 한사람 같이 일떠섰다

새해에 들어서자 로동자들은 간부들을 만나면 "목재가 언제 도착되는지요" 하고 매일 한번씩은 물어야만 견디였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당연한 의욕이 였다

지난해 이곳 간부들은 배정받은 목재가 제발로 걸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쩌다 조금 당도하면 며칠동안 작업하고는 입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격으로 여전히 무사태평이였다

11월에 들어서자 이미 다른 기업소들에서는 년간계획을 완수하고 있었지만 이 공장은 이런 사업방법이라 년간계획을 70,7%바께 못했다 더구나 한시내에 있는 서평양 가공공장의 년간계획 완수의 소식이 이 공장 로동자들을 더욱 초조케 하였다

하루는 제재공 김춘택동무가 지배인을 찾아 사무실에 왔다

『목재 때문에 또 왔소?』

『네』

『동무들은 왜 그렇게 년초부터 다가치오 일이란 급히하면 실수하는 법이요』

『1월부터 목재가 없어 제재기가 멎고 있다는것은 이달은 물론 년간계획에 지장을……』

『동무! 성격이 어찌면 그리도 급하오 만일 1월에 락후했다기로서니 그것이 년간계획에 지장을 가져올게 뭐 있소 2월에 가서 1월에 못한것을 보충하고 2월에 못한것은 3월에 하면 되지 않소?』

너무도 늘어붙은 지배인의 태도에 그는 자기의 의사를 끝까지 표시할 수 없었다

며칠후 지배인은 목재를 구하려 무산을 향해 오랫만에 자리를 떴다

목재는 뜨문 뜨문 들어오기 시작했으나 도착하자 곧 소비되여 다음 차가 올때까지 로동자들은 기계를 멈추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1월말경에 지배인은 돌아왔다

그는 1월총화 준비에 한창인 간부들을 지배인실로 불러 드리였다

지배인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생산실적 부터 물었다

『아모리 따져보아도 74,5%를 넘길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하고 기사장이 말하였다

그제야 지배인은 태연하게 무산 정형을 말하였다

다른 공장들에서는 오래전부터 현장에 계속 매달려 차량을 얻으려고 투쟁하는데 자기는 공장일이 궁금해 그리할 수는 없으며 단기일내에 발송 되도록 조직 했으니 기다리면 된다는것이였다

이와같이 막연한 말을 들은 기사장은놀래며

『이젠 거짓말도 너무해서 로동자들을 보면 달아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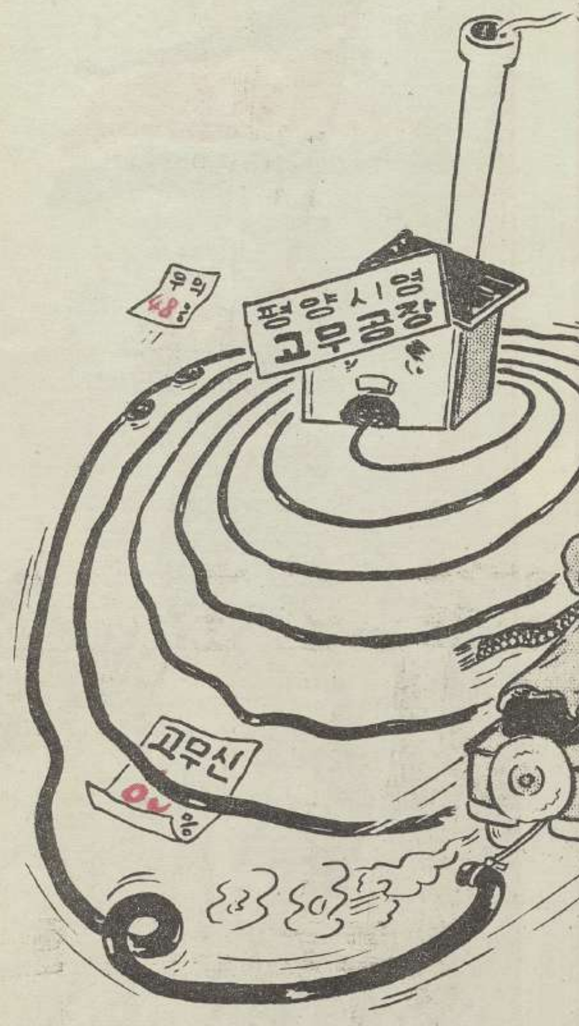
『오늘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니 새삼스러히 말할 필요야 없지요 있는 목재가 언제 와도 우리 공장에 도착할것 아니요? 적게올때면 일을 적게하고 많이 올때면 일을 많이하면 되잖소?』

지배인은 껄껄웃고는 이내

『저— 그런데 로동자들에게는 목재가 곧 온다구만 해두시요 우리 공화국에는 얼마든지 있는 목재…… 제가 아무때구 우리 공장에로 안오구 배기 겠소』하고 지배인은 배를 쓰다듬으면서 또 웃었다

— 장 필 순 —

일사 천리



— 돌아라 돌아 통쾌한 드라이브다

평양 시영 고무공장 에서는 1월분 생산 계획을 품종별로 실행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 계획의 량적 미달성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한다.

三등품의 데모

— 지배인 동무 고집하지 말구 우리의 말을 들으시요

인민들은 맵시 있고 견고한 가정용구들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평양 도자기 공장에서는 생산을 량적으로만 보장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최 영 근 그림

두가지 '규률'

어려운 일은 제아니면 못 하는듯
잘된 일은 언제나 저혼자 한뜻이
잘못된건 슬 슬 남에게만 밀며
"호통질"로 「비판」을 대신하는
녕변 견직 공장 공장장 덕산이 잘난척
만 한다네

새해 첫 출발 모타는 돌고 돌아
재빨리 들고나는 북 바디 분주해
함박꽃 진달래 꽃무늬도 아롱 아롱
새 옷감 비단발 각각으로 감기는데

직공장 몇몇 술친구 더무러
『령북녕변 찾아가자』 노래 속에
날을 밝혀 동이술 퍼먹은 탓으로
아침나절 다 지낸 점심참에야
공장장 덕산이 직공장을 데리고
어슬렁 어슬렁 뒷문으로 들어섰다네

약산머리 높다랗게 해는 남아있어
첫 교대 끝날시간 아직도 멀었건만
꿀단지를 집에다 파묻고 나왔는지
공장장도 직공장도 술그머니 가곰 없어
지네

먹장구름 가리운 금음 달인지
정초에 접어들어 열흘도 채 못되여
얼굴조차 않내민 날 벌써 두세번
그러나 그들은 얼굴이 두려워서
종처럼 붉어질줄 모른다네

수직공 영옥동무 불려왔다
두 눈을 부릅뜨고 고함치는 공장장
『아니 그래! 영옥이!
새해 잡아 열흘도 못되여 무단결근 이
틀식—
직기를 쉬우는건 국가앞에 범죄야!
열성이 식어서야 좋은비단 짤수있나』
얼어붙은 열성이 식은열성 나무랜다

정월도 다 가는 또 어느날 저녁
수직공, 려직공, 두 명 불려왔네
『글쎄 불합격 품을 또 짜냈으니
옥경인 정신이 쑥 빠졌냐 말이야』

『마음씨가 고아야 좋은비단 짜거던
굽어진 경사 잇지않고 밀도 보장되
는가?
이년이 넘도록 표준조작법도 몰라
그러니 년초부터 생산계획 망쳐먹지
머리가 조곰만 돌면 그럴순 없서
생산에서 규률은 생명인걸 왜 몰라!』
말은『청산 류수』로 그럴듯 하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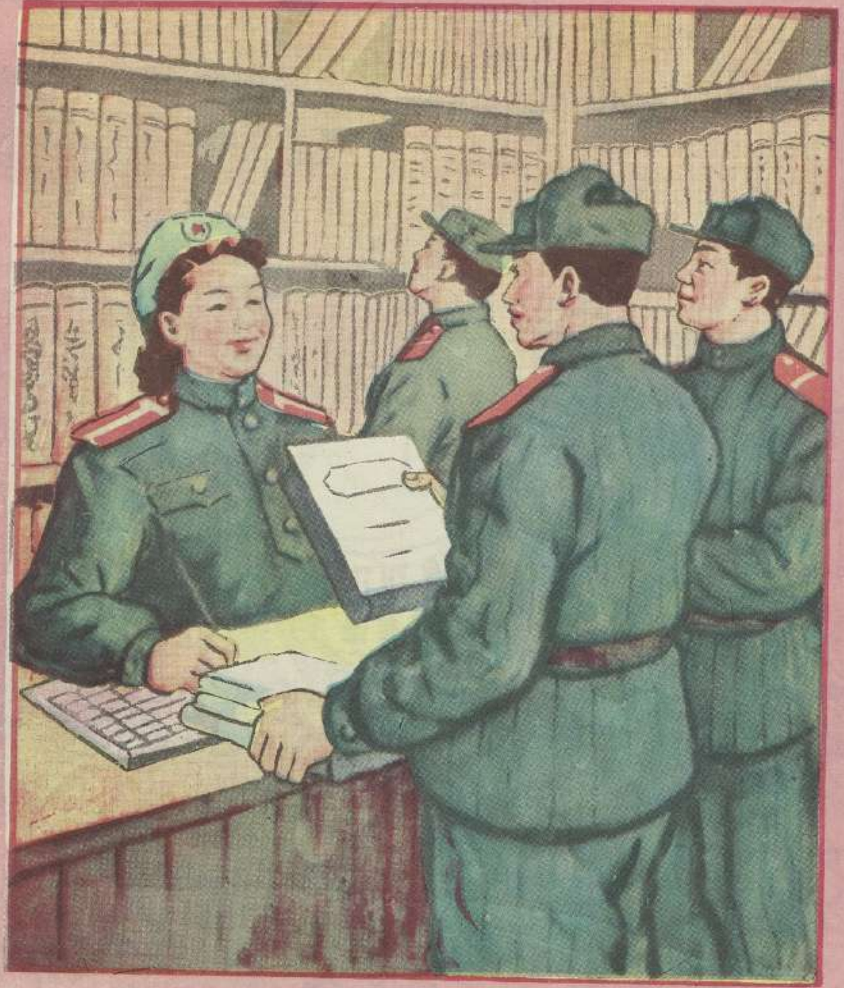
「두 가지 규률」있을수도 없는일
제 잘못 제규률은 실정에 얹어놓고
남의탈만 파집으니 그야 말이되나!

생산에서 규률은 진실로 생명이야
지켜야할 의무조항 누구나 같은것
배우고 실천할 의무는 크다 하는데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 없단 말인가

군중규률 애국열성 더욱더 높이자면
책임일군 애국열성 더 커야 하며
모든 규률 모범으로 지켜야 하는법
그럼으로 민주국가 우리 나라에서는
간부들이 선참으로 수범을 해야지

— 석 봉 —

선진 과학 기술로 무장되는 간부군대들



— 도서실 주임동지 !「쏘베트 군대 략사」를 빌려주시요. 안 창 수 그림

원쑤를 무찌르던 그힘과 지혜
로 우리 일을 협조하는 우리 인
민 군대를 언제나 인민의 리익
을 위한 무력이라 네

영예론 우리 마을 후방가족들도
농업협동 조합에 굳게 단결 했
네 금년도 증산 계획 완수할결
의 초소의 그이에게 소식 전하리

안 창 수 그림

원쑤와의 싸움에서

조선 인민들의 우수한 아들 딸로서 구성된 조선인민군은 미제 무력 침공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 역도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 무비의 영웅성과 애국적 헌신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정전 이후에도 꾸준한 군정훈련으로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 투쟁에 직접참가하여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계속 떨치고있다

승리의 깃발

전후 복구 건설장에서

최 한 진 그림

전우에게

어름녹아 골짜기 젖고
검은땅 눈 먹음어 부풀어
넓은벌 발가리 재촉하는듯

벌써 거름 떤이어 나가고
우량 종자 알뜰히 갖추어 놓아
이젠 영농 강습 마저 끝냈으니
2.8절까지 하려던 계획
앞당겨 말끔히 치려 놓았다

전우여 !
다감한 마음으로 이글을 쓴다
동무와함께 습격을 앞둔
2.8절 전야 그날 밤처럼

출발 한시간 전
어둠 드리우고 눈 덮인 봉리
엄폐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였던가

동무의 공장 다시 일어설때며
나의 농토 다시 다룰 기쁨에
사랑하는 고향 어진 어버이
우리가 항시 하던 그말 되풀이하였으나
그것은 얼마나 즐거운 추억이던가

전우여 !

지금 협동경리의 길 밝게 펼쳐
상처 가시고 살진 벌은 봄을 다시 맞는다
벌이 항시 살진 우리의 땅으로 있기위해
평화가 영원히 깃들기 위해
전우여 !
포연 내음새 사라졌고
조국의 방선을 지켜 서있는 봉오리 위
내마음 동무와 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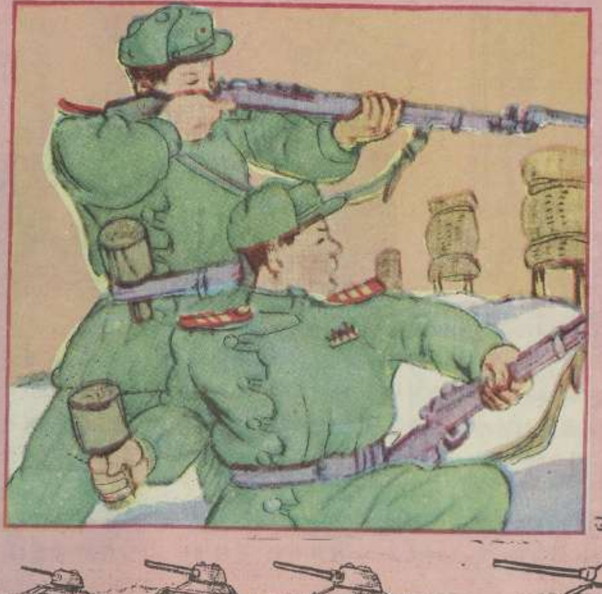
초소에 선 전우여 !
전군 일곱해 마지
먼 이 벌에서 보내는 농민의 축하를 받으라
새해 더 흐뭇한 가을로
내게주는 믿음을 더 두텁게 하리

— 구 민 —

더욱 굳어지는 형제적 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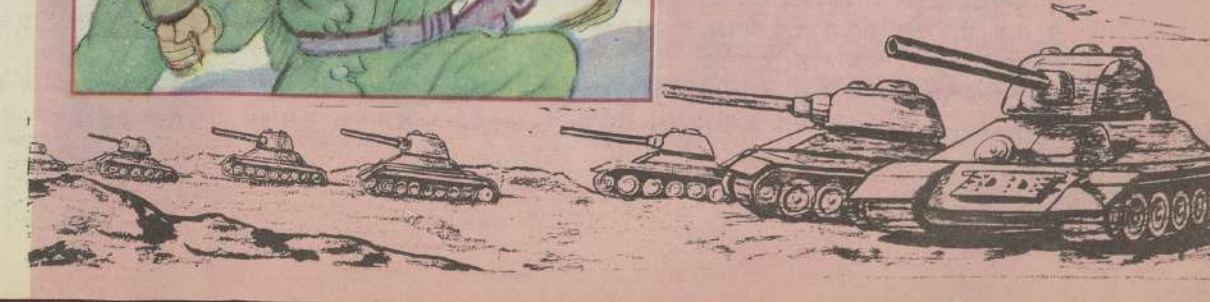
공동의 원쑤를 소탕하던 조선 전선에서 동무들은 참 수고를 했습니다 ! 안 창 수 그림

우리는 인민 군대 용감한 전사
사랑하는 향토를 굳세게 지켜
오늘도 군정학습 우수 했으니
즐겁게 춤을추고 노래부르자



"인민의 자유행복생명을 살고
규율과 훈련으로 다진몸"으로
철벽의 민주기지 지키여내며
조국의 통일 독립쟁취하리라

송 용 남 그림



제때의 적발

—아직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아는 게지····
— 우리의 조합엔 이런 불순 분자가 앉을 자리 없어

리 영 춘 그림

황해남도 옹진군 만진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김유연은 협동 경리 발전에 헌신 복무할 대신에 조합 재산을 침범하며 공동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에 복종 시킴으로써 조합발전에 지장을 주었다.

두번 놀랐다

— 이 긴줄은 무슨 배급을 타는 줄 이요?
— 아니요. 기술강습을 받으려는줄이요!
— ?!

— 이높은 수확은 무슨 비결에 의한것이요?
— 아니요 선진 영농방법에 의한것이요
— ?!

최 영 근 그림

퇴비사의 하소연

국영 은률 과수농장 일군들의 사업방식은 끓는 남비와 같다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마다 잔뜩 밀리었다가 남비처럼『발랑 발랑』끓고 그 시기만 지나면 싸늘하게 식어 버리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남들이 거반한 다음에야 막 볶아 대이기 시작한다 즉 그들의『깜바니야적 사업작풍』은 자급비료 생산에서 넉넉히 찾아 볼수 있다

지난 여름 풀 베기시기에도 지배인을 선두로 하여 얼마동안 다른일은 다 전폐하고 전원이 풀베기에 나섰다。 그러나 며칠후 역시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 애쓰고 비어온 그 풀마저 흙을 덮고 인분뇨를 치어 간수하지 않어 썩기는 커녕 꽂꽂이 말라들어 마지막에는 거반불쏘시개가 되다시피 되었다

가축에 욕초를 깔아주어 질 좋은 구비를 다량생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재우리, 색비통, 퇴비사를 크게 확장하는 등으로 벅작거리고 서둘었으나 역시 그 시기가 지나니 흠헤 지고 말았다

춘기파종기가 가까워 오자 지배인을 비롯한 지도일군들은 요지음 역시 박짝 끓고 있다 그러나 끓었다 식었다 번덕이 많은 그들의 자급비료생산은 제대로 될리 없었다

어느날 농장 퇴비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옆에 서있는 돈사를 보고

『애야 난 배고파 못 견디겠다』

하고 입을 열었다

퇴비사의 넓은 안은 텅 비어 회오리 바람만이 구석구석에서 먼지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농장은 은률, 장연군 소재지가 아주 가까워 주변 도시에서 인분뇨를 다량적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전연 인분뇨가 장만되지 않았다

『난 정말 배고파! 나에게 구비나 좀 보내 주렴아!』 퇴비사는 돈사에게 간청하듯 말했다

『넌 지배인의 솜씨를 잘 알면서 그러니? 2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항상 짚을 깔기만하면 뜻뜻해 딩굴며 구비를 얼마던지 만들텐데… 지배인은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가 요지음에 와서야 박짝 끓으며 욕심을 부려 짚을 키 넘게 쓸어넣어 그것이 썩어 구비가되자면 까마득해! 그러니 구비생각은 애당초 하지도말어』

퇴비사는 인분뇨 구비 초목회, 파벽토 니탄등,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이러한 자급비료를 적극 끌어들여야할텐데 이모다 엄두도 못할지경이나 그중 구비 만은 돈사에서 많이 생산되리라고 믿어 왔다…。

오라지않아 봄 발가리가 시작될것이며 파종을 앞두고 퇴비를 내야할 시기였다

하루는 농장 지배인이 경리부장과 함께 퇴비생산에『돌격』을 외치면서 퇴비사앞에 나타났다

퇴비사는 목청껏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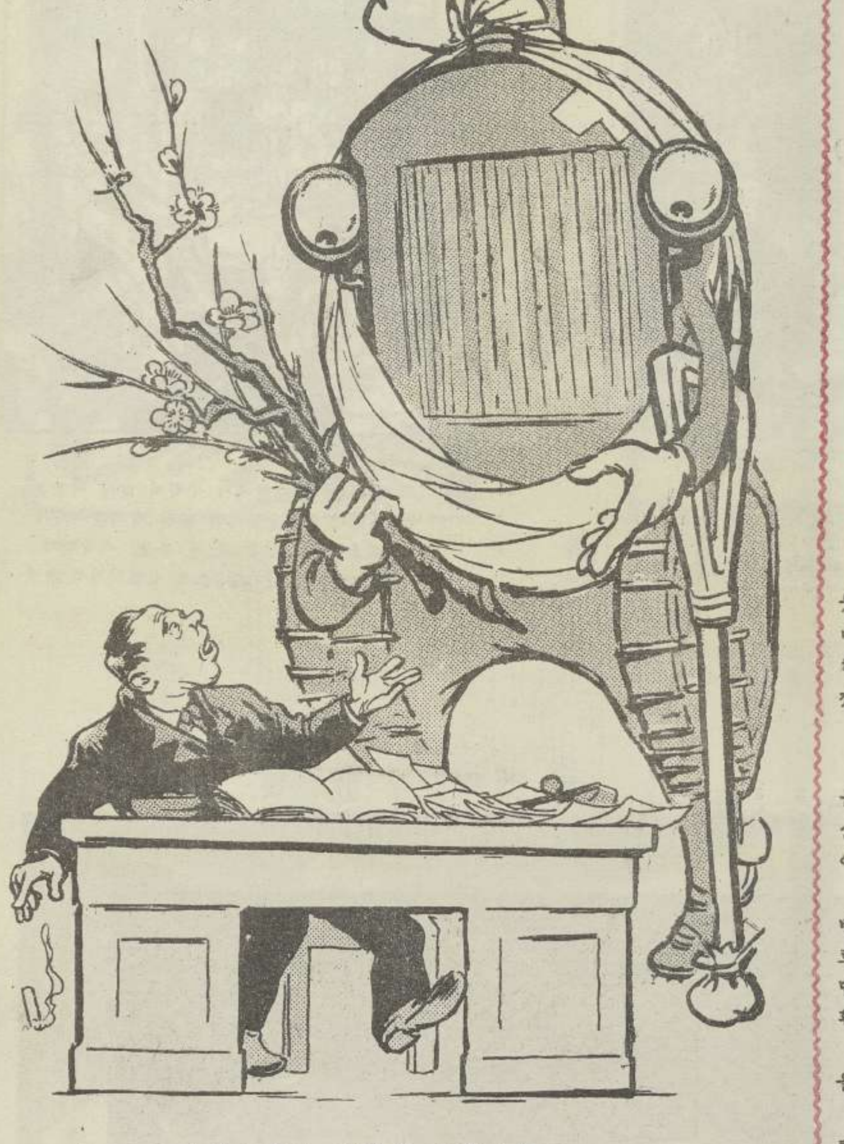
—『지배인동무, 퇴비를 좀 넣어주오 남비가끓듯한 당신「솜씨」에 난 배고파 죽겠소, 저 돈사의 짚은 구비 되기가 다 틀렸소』

지배인은 두손으로 귀를 막으며 휭 다라났다

—원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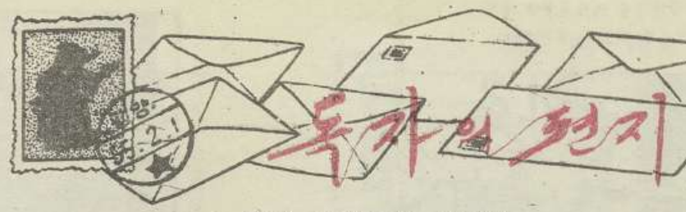
춘기 파종기를 앞두고 2월은 뜨락또르 및 기타 농기계 수리와 영농준비사업을 추진 시킴에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러나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적지않은 농기계 임경소들에서는 동기 농기계수리 보수작업을 위한 준비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굼뜨게 진행하고 있다.

매화 꽃이 피었다



— 소장동무, 이꽃을 보십시요
난 빨리 들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리 영 춘 그림



독자의 편지

◇ 렬차 정거장의 역명판

1월 초순 어느 날이였습니다 나는 오랫 만에 평양 신의주 간의 렬차를 탔었는데 밤이 되자 차 안은 차츰 소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거장에 당도할 때 마다 어느 정거장이냐고 묻는 소리 때문입니다

역 사무실은 전등불로 휘황하게 밝으나 전등이 있어야할, 즉 역명판에는 없으니 렬차가 어느 역에서 정거했는지 다음 정거장이 어덴지 알수 없습니다 내 옆에 앉었던 한 중년 농민은 웃으면서『야 석냥불이라도 켜들고 나가 비춰보자』이렇게 비

웃겠지요? 그리고 역명을 알려고 서두는 동안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때 이 농민은 내려야 할 역을 노치고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철도 일군들이 역명을 부르기는 하나 복잡한 속에서 잘 들리지도 않으니 역명판만 볼수 있게된다면 아무 불편도없겠지요. 귀중한 전등불을 유효 적절하게 리용합시다(조선경비대 9215호(만)김선도)

◇ 우리 식당이 개선되였습니다

문—「활살」작년 9월호에 실린 평양시영식료품공장의 비판 그림을 본따서 직장신문에 게재했드니 평양시영식료품 공장과 같은 결함이 있었던 3사업소 식당 운영이 개선되였습니다

원고를 글로써 보내면 만화로 그리여「활살」에 게재할 수 있으며 활살사에서 지방 또는 각 직장에 통신원을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경공업성 평양 제1뜨레스트 리동성)

답—「활살」의 비판으로 식당의 개선을 가져 왔다니 귀 직장동무들의 보건과 생활문화를 위하여 반가운 일입니다

글 원고와 만화 원고나 많이 보내 줄수록 환영하며 동시에 인민경제 3개년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독적인 현상들이 있으면 재료라도 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통신원은 없습니다만「활살」애독자는 모두가 통신원의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부수가 부족합니다

문—「활살」은 일반 군중과 기관 일군들에게 많은 교양을 주는 잡지로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장진군 위원융 리기환)

답—부수의 증간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활살 편집실)
원 광 수 삽화

대학병원은 바로 이 근처라는데 어지러운 석탄무지를 보니 무연탄 배급소 같군?!아이구! 이 쏘아라

송 용 남 그림

— 형님…형님…앗?! 나는 우리 형님인가 했드니 참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최 영 근 그림

수산성 중앙 자재 관리소 소장동무! 잠자는 수직원을 두어 도적을 더맞지 않기위해 혁명적 경각성을 붓적 높이시요。

송 용 남 그림

미제와 리승만 역도가 강요하는「미국식생활양식」은 남조선을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죄악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다。 미국의 반동신문 "뉴욕타임스"지 까지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가 성장한다면 쓰레기통에 장미화가 피겠다』 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남조선은 병들어 가고있다

병든 서울의 하루

신당 동에서

미군은 괴뢰군을 대동하고 새벽달 교교히 비칠때. 서울 신당동에 나타났다。
— 강탈. 살인.『행복』—
『미국식자유』는 활발히 전개되였다。

미군전용 식당에서

2

까마귀 백로 무리에 섞이면 안돼…… 백인식당에 깜둥이 가…까라…까 신성한 미국 병사는『신의사도』이다。

수송 동에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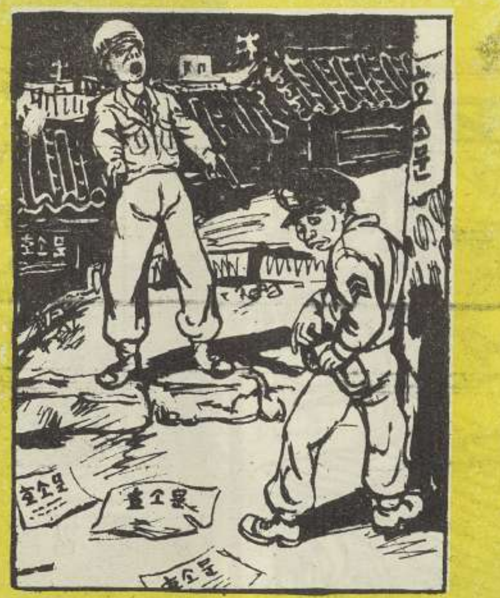
새벽의 첫 작업에서 수확이 많아 미군은 몸짓이 유들유들하게 아침 식사를 치르고『문화적 생활』의 제1과를 시작한다. 조선인민을 『야만』으로 선전하기위하여

동대문 시장에서

4

헷이…통쾌한 질주다. 만사다.
이것이 미국의『스삐트업』이다

술내골 에서



5

「야—잘 걸렸다 보고할 거리가 없던 참에"국방군"을 범인으로 만들지 딸라의 상금은 갈데없다
이 자식 너 호소문 뿌렸지? 번명 일없다
아메리카 엠•피 눈은 정확하다

백마 빠—에서

6

새벽부터 시작된 미군 생활의 크라이막스。
「우리 미국사람 당신들 구원하러 왔소……
그러니『대한민국』의 모든것은 우리의것이요

박 승 희 그림

경무대의 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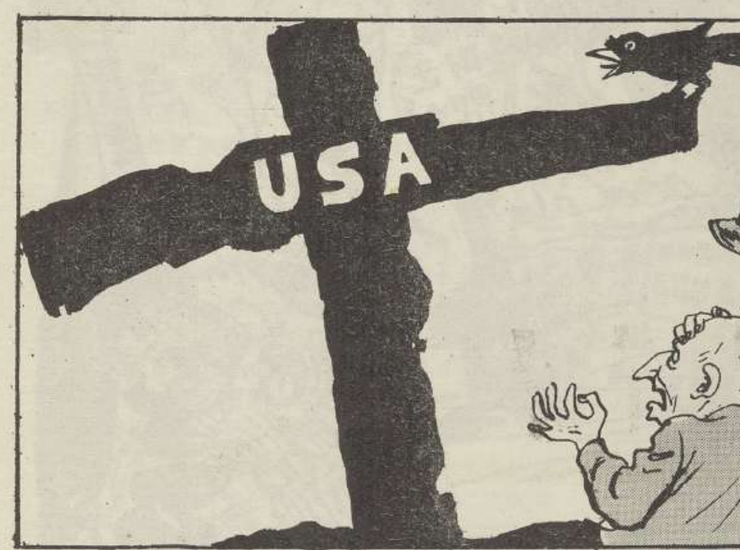
장 진 광 그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 있는 남반부 애국인민들은 최고인민회의 호소문의 실천을 위하여 방방곡곡에서 투쟁의 불길을 올림에 따라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몹시 당황하고 있으며 남반부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억압하기 위하여 더욱 발악적으로 날뛰고 있다

리승만—이놈들아 뭘해? 정신차려라. 빨리 경찰을 경찰을 동원시키란 말이다. 참 헌병도 동원시켜라. 아. 아니 헌병 놈들 믿을수 없다. 제손으로 뿌리구 다니는 놈들 그놈들 엄중 처단 엄중 처단 아이구 죽겠다 어느놈을 믿어야 한단 말이야 오—하나님………

멸망을 재촉하는 길

모든것을 전쟁을 위하여 날뛰고 보면



모두가 멸망의 최후일것을……

미제의 충실한 로구 리승만은「북진」「북진」떠 버리면서 방대한 군비예산과 괴뢰군 증강에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이는 폭탄을 지고 불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자멸의길을 재촉하는 불작란에 불과하다.

박 승 희 그림

남조선의 한녀성의 편지

리승만 괴뢰군 병사—시체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하나의 편지。이 편지는 누이 동생이 오빠에게 보낸 편지다。남조선 어느 도시로부터 자기의 오빠에게 집 소식을 전해주는 편지였다。동시에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몇분 동안 고통과 절망속에 빠지고있는 그 심정을 그린 것이었다—나는 자살 하기 몇분전 내 피개에 얼룩져진 피와 눈물로써 이 편지를 쓴다—이것은 그 편지의 시작이였다。이 불행한 남조선의 녀성이 지금 어떤 마음이 좋은 사람, 에 의해 파묻혔을것이다。그는 자기 오빠가 이 편지를 볼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며 또는 오빠가 이러한 비극의 한 각색으로써 출현하는것은 몰랐을 것이다。—이 편지가 악랄한 전선에 보내왔을때 오빠가 이것을 보았다면 나의 유일한 축원은 이제부터 앞으로는 다시 어머니나 누이 동생을 생각하지 말라!—이것이 편지의 끝이었다。

그는 자기의 오빠가 미제의 대포밥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하나의 보통 가정의 비극이다。이 편지로써 폭로한 것보다도 더 비참한 비극들이 미제가 점령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부단히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동무들! 나는 이 편지의 전문을 여기다 게재한다。나는 당신네들이 한자 한구를 자세히 내려 보기를 바란다。—오빠! 바라오니 너무 괴로워 마세요 기실은 벌써부터 나는 령혼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였어요。나는 왜 해양이없는 세계에서 오늘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 왔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늙은 부모와 어린 동생을 어떻게 할것인가? 나는 병환에 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가두에서 걸식하는것을 더 참을수 없어요 걸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의 생활이 딸로써 태여난 오빠의 누이 동생 몸에 부담 되였다우……

나와같이 처음부터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자라난 녀자로써 이런 마굴에 극악한 사회의 문턱에 발을 들여 놓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하겠어요 오빠! 나는 이런 직업을 구하려 하려고 할때부터 마음에 고통이 극심 안한것은 아니였어요 매일같이 나는 눈물로써 세수를 했어요。집에서는 이러한 처지에 빠짐으로써 가마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했다우。또 자 세식구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내앞에는 오직「양갈보」의 길로 나갈수밖께 없었소 나는 오빠가「양갈보」라는 석자를 보면 마음이 쩔것을 나는 알아요 그러나 나는 하루종일 흉악한 악마와같은 미국병정들과 같이 하루종일 향락하며 나의 령혼을 팔아먹고 나의 청춘 소녀의 정조……。

그전에는 나는 오빠에게 이런것을 알려 주지 않았어요。그것은 오빠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못하는 까닭이였어요。도리혀 오빠의 처참한 심정을 증가해 줄 따름이니까요。오빠! 그대가 국방군으로 나갔을 때 우리와 같은 이런 가족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오직 미국병정들의 노리개감으로 될뿐……。

항상 곤드라진 취정뱅이들이 밤이 깊어 찾아와서 나에게 덤치군 해요。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불문하고 만약 그를 상대하지 않으면 악독한 매로써 맞이할 것이애요。여지까지 편지를 썼을때 나는 나의 마음의 분격을 억제할수가 없어요。원래 나는 이러한것을 오빠에게 쓸려고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오빠! 오빠가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될때 분개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괴롭지않을것인가? 한때 청천백일하에 한무리의 미국병정들이 어떤거리에서 나의 옷을 벗겨 버렸어요。그때 나는 통곡했어요 그러나 놈들은 미친개처럼 나를 잡바트리고 련달아 다섯놈이 나를 유린했어요。그리고 나를 사진 찍었다우……。

얼마후에 나는 성병에 걸렸어요。병으로인해서 나는 이러날수가 없었습니다。죽엄의 시각은 시시각각으로 나에게 립박했어요。그러나 어머니는 이것으로 인해서 밥을먹지 못하고 이틀후에 기력이 없어 쓸어지고 말았습니다。가련해요。어머니는 기아의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맥박이 끊고 말았습니다。

오빠! 나의 눈에는 본래 눈물이 말랐어요。나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죽은 어머니의 시체가 나의 옆에 있고 그를 묻어주는 사람이 없는것을 보았을때 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눈물은 어디서던지 샘물처럼 솟아 나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게 해주라……。그러나 누구나 돌봐줄사람 없는 어린 동생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와같이 비참한 그 나날을 보내겠끔 두고 갈수는 없어요。동생을 이렇게 두고가는것 보다도 죽엄의 길로 나와같이 가는것을……。오빠! 오빠! 비통하여 주지말라 내손은 떨리고 심장은 찢어지는것 같애요。나는 아무 기력도 없어졌어요。더 내려 쓸수 없습니다。오빠 다시봅시다。나는 오빠를 한번 다시 봤으면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나는 마지막으로 오빠를 생각하게 될때 나는 오빠가 얼마나 간절한가 또는 얼마나 가엾은가……。

이 편지가 악랄한 전선에 전달되어 오빠로 하여금 진정으로받어보게되였을때 나의 유일한 축원은 이제부터 앞으로 어머니나 누이동생이나 동생을 다시는 생각 말아 주십시요。오빠의 애달픈 누이동생 최애주로부터—

동무들! 생활에 대한 갈망—이와같은 남조선의 보통녀성의 이름을 기억하라。그는 가장 선량한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이다。동무들이 이 편지를 본 뒤에 당신들의 심정에서 솟아 오르는 감정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로하여금 인류의 량심에 호소하자! 우리로하여금 이와같이 불행하고 비참한 죽엄들에 대하여 호소하자!

—왕 명—

불길같은 념원

— 조국이 통일되지 않고는 우리들이 진정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백 인 균 그림

남조선의 애국적 학생들은 미제 노예교육을 반대하며 진정한 학문을자유스럽게 받기위하여 이 운동에 가담하여 호소문을 광범히 배포하고있으며 동맹 휴학동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② — 야 이 도적놈아 그 많은 돈을 무슨 턱으로 네가 다 처먹겠느냐
— 이놈아 내짜로 빼 내온 돈을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③ — 네가 3개월 동안에 농민 150명을 죽인 경관 유해진이지! 참 장하다! 네게 훈장과 상금을 준다. 빼앗은 벼3백가마니는 내게 슬그머니 돌려라。
— 네! 감사합니다! 분골 쇄신토록더욱"진충보국"하겠습니다!

어떤 괴뢰"장관"의 하루

① — 여보게! 오늘 무슨 좋은 수가 있겠는지 점 한 장 잘 쳐 보게
— 네—잠간만 계십시요. 참 좋습니다. 횡재수와 영화 수가 뻗쳤으니 재롱운이 울시다

④ — 오! 황홀한 반거리! 통쾌한 대활극! 미국 장병들의 즐거운 위안소! 카페와 술! 이 얼마나 고마운 미국식 생활 양식인가!

낡아 빠진 침략구실

중국 인민의 대만 해방을 방해하는 미제는"정화"라는 연막뒤에서 유•엔의"알선"을빌어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무력침공을 감행하려는 음흉한 야망을 폭로 하였다. 그러하여 1월 24일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부장 주은래는 그의 성명에서 단호히 이를 규탄 폭로 하였다.

장 진 광 그림

원자광의 미래

찢는듯한 몸부림의 소음이 구름을 타고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대륙에서 서구라파에서 요란히 울린다。

—휘둘러라 살륙의 자유 원자탄의 자유—

해적의 피를받은 저명한 장군들 외교관들과 대통령이 몸부림치는 소음이다。오늘 자살에 직면한 판제론의 정체 썩어가는 월가의 악취를 감추고 보통사람들의 시선을 매혹해 볼려는 검은 뱃심에서…… 몸부림친다 꿰친다 고함친다。

보통사람들은 오늘과 어제일은 알고있다。

제2차대전의 참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에서 가시어지기도 전에 허드슨강위에 자유의녀신을 가로란 군신이 그들의 자유를 계시하기 시작한 그때 그들은 원자탄의 독점이라는 기괴한 악선동으로 딸라의 부유와 한없는 미래를 다짐하여 보았다。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지나갔다。

마샬안도 딸라의 운명도 총파산의 운명에 직면하였으며,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북아메리카 대륙은 파산의 진통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해적의 후예들은 불착란을 하였다。원자탄 공갈로 불장난을 시작했다。유•엔의 푸른 깃발밑에 숨어 맑은아침의 나라 조선땅에 이리떼 같이 기여 들었다。자처하는 최신식 해병사단도 항공모함도 동원했다。

그때 바로 그때— 백아관에 모인 장군들, 외교관들과 대통령은 지도를 펼쳤다。그리고 콧노래를 불렀다。

폭탄으로 뒤집어 씌우자 그러면 아메리카의 강대성은 기적처럼 나타나리라고……

그러나 폭탄은 기적을 낳지 못했다。

그다음엔 전통적 낡은 외교의 무기고에서 꺼낸 원자탄 독점을 다시 미치도록 외쳤다。 순하게 타일러보려 고도하고 폭쉬인 외침으로 위협도하였다。

그러나 원자탄 미치광이들은 순박한 보통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말았다。

푸른 깃발을 꺼구로 세우고 조선사람에게 무릎을 꿇었다。현실은 그러하였다。

이것은 먼옛날에 있는 회상이 아니다 바로 두 해전에 세상에 있은 일이다。

1954년이 저물어가고 1955년이 밝아올 무렵 원자탄에 대한 소음이 미국식 장군들 외교관들의 입에서 온몸에서 돼지 멱따는 신음 소리와같이 울려나왔다。

멀배스, 태드포드, 스티븐슨 그룬서에서 몬트고메리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나발을분다。

—평화를 압살하라 원자탄이다—

—베르마흐트에게도 처—칠씨지도 원자 탄을 애끼지 말고 넘겨 주라—

—전쟁에 원자탄이다—

그리하여「북대서양동맹」리사회까지「원자탄자유」를 결정함으로써 서구라파에까지 소유만이 아닌 망동을 옮겨 놓았다。

그러나 그들의「원자탄의자유」는 그들 외교관들 장군들이 웨치는 독점은 이 세상에 없다。그들은 원자탄 보다 수소탄의 비밀마저 늦게야 알었다。

그들의 기괴망측한 소동의 진면목은 이렇다。

월가의「선심」으로 넘겨준 베르마흐트나 처—칠의 손에서 원자탄이 터져 먼저 원자탄 자유의 제창자들의 머리위에 들씌워 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하랴 바람을 일운자가 바람에 쓰러진다는 속담대로 히로시마나 나가사끼가 아닌 바로 뉴욕과 워싱톤의 복판에서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빚어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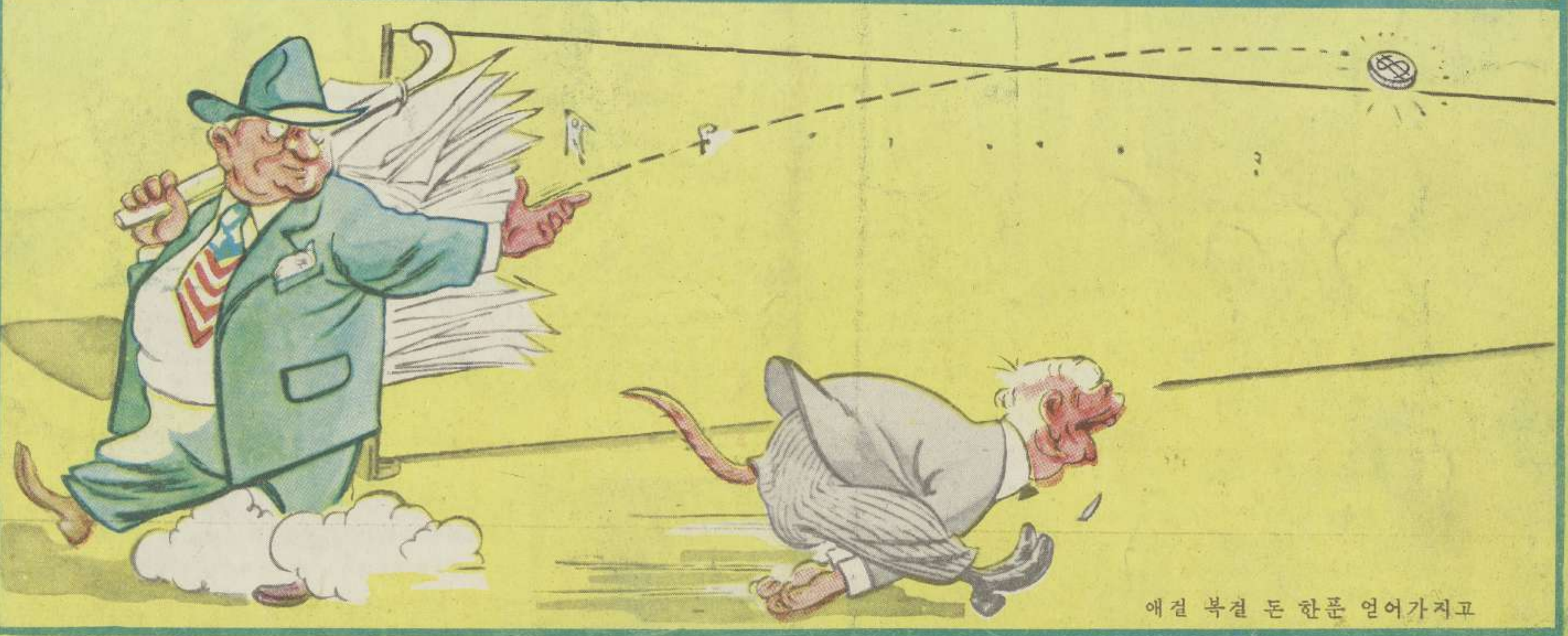
그때 바로 그때 원자광들은 록키산맥 위에서도 성층권위에서도 춤추지 못할것이다 미시십삐강 짙은 물속에서 히틀러의 유령과 쟈즈춤이나 추리라!

—홍 계 한—

리승만 역도는"조선인민의 재산으로된 적산 불하를 선포하여 미제독점 자본가들에게 남반부의 산업자원을 송두리채 팔아 넘기기에 급작히 서둘고 있다. 이는 미제에게 략탈적 리윤을 보장하여주는" 동시에 얻어받은 돈으로"군비에충당"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인민을 학살하는 범죄적인 전쟁비용에 탕진하기 위한것이다

「개헌안」실시후의 제1막

톡톡 털어 상전에게 팔어 넘겨



애걸 복걸 돈 한푼 얻어가지고

「북진」「북진」 살인무기 사 들인다

장진광 그림

발행소 횃불(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 1955. 2. 15. ㄱ-38029
책임주필 장진광 인쇄소 국립종합인쇄소 발행 1955. 2. 25. (값 90원)